



## 베네수엘라

# 고유가 지속으로 국가신용등급 상승

8월 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가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종료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국안정과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소환투표가 종료된 지 열흘 만인 8월 25일에 S&P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고, 9월 8일에는 Moody's도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Caa1에서 B2로 두 단계 상향조정했다.

이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외채상환 능력이 개선됐고, 차베스 대통령의 국민소환투표 승리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주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석유수출가격 이외에 베네수엘라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비관적인 평가도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도 부침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소환투표 종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국불안 가능성 상존**

그 동안 베네수엘라 최대 정국현안이었던 국민소환투표가 무난히 마무리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국민소환투표의 최대 승리자는 차베스 대통령이며, 구심점 없이 분열양상을 보여 왔던 범야권 연합단체인 민주연합(Coordinadora Democrática: CD)은 무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파와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파간의 대립으로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차베스 대통령은 보다 여유로운 입장에서 야권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 반대파와 지지파 간에 대립의 골이 깊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대선에서 빈민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후

입법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농지개혁, 무상교육 확대 등 부패척결과 빈민구제를 위한 급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사회주의 성향의 급진적 개혁정책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로 2002년 4월에는 차베스 반대파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12월에는 63일간 지속된 총파업으로 석유생산이 중단되는 등 베네수엘라 경제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총파업 종결 이후에도 차베스 반대파는 대통령 불신임 국민소환 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이번 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차베스는 이번 선거에서 'No'에 투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불의, 배고픔, 빈곤에 항거하는 혁명을 지지하는 한 표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차베스 반대파의 지도자인 엔리케 멘도사는 이번 선거에서 'Yes'에 투표하는 것이 진보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초만 하더라도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차베스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번 국민소환 투표에서 차베스의 패배가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국제유가의 상승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팽창정책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차베스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 왔고 이 것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소환투표의 종결로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정국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급진적 개혁정책을 둘러싼 기득권층과 빈민층간의 대립이 언제든지 물

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특히, 차베스 반대파 중 강경파는 국민소환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차베스 퇴진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는 민주연합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차베스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06년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승리하여 6년간 더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하는 한 베네수엘라의 정국안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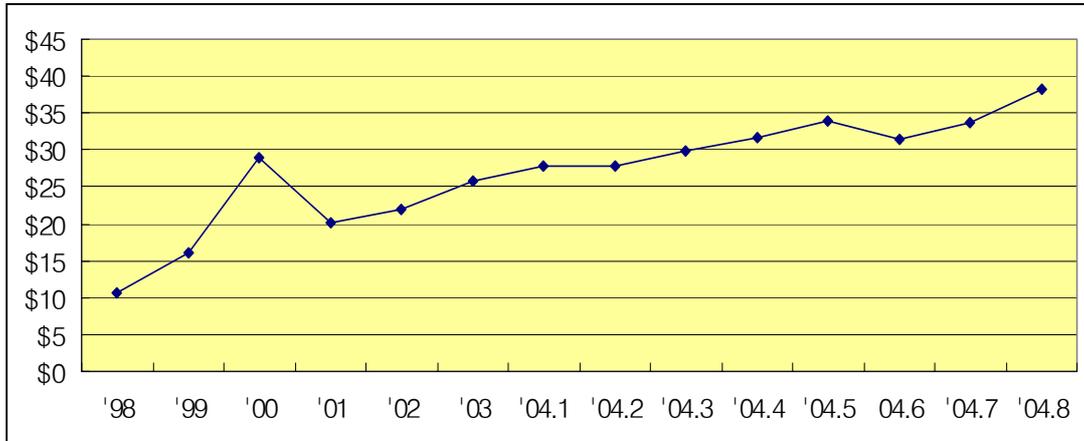
###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 지속 전망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민소환투표가 차베스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주장하며 쿠바, 리비아, 이라크 방문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외교활동을 계속해 왔고, 미국이 2002년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정 했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차베스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석유에 의존할 수

〈그림 1〉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가격 변동 추이

단위: 달러/b



자료: 베네수엘라 에너지자원부.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고유가 지속으로 경기 회복세 가속화

국민소환투표로 인한 정국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베네수엘라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왔다. 경기회복의 주요 요인은 불리바르화 평가절하 및 사상 최고의 석유시세로 인한 수출 호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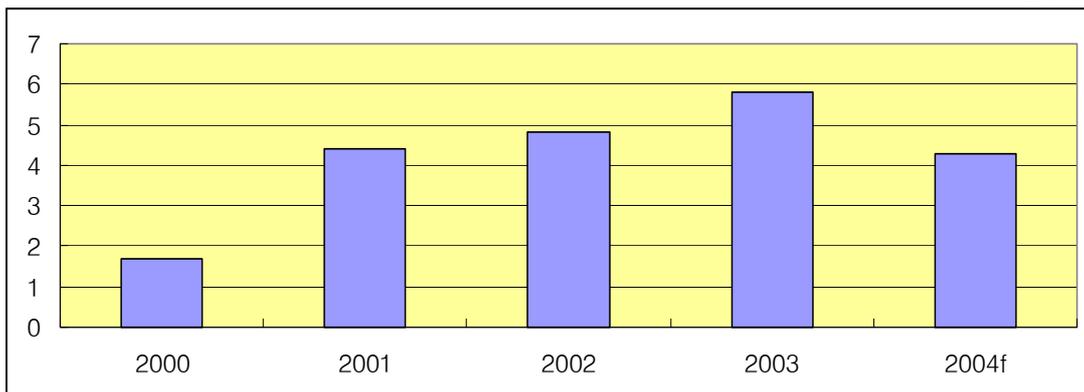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다. 금년 상반기 베네수엘라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한 1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석유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150억 달러였으며, 비석유 수출<sup>1)</sup>도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팽창정

〈그림 2〉

베네수엘라의 재정적자/GDP 지표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EIU.

1) 베네수엘라의 주요 비석유 수출품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강, 목재, 종이, 펄프, 어산물, 과일, 커피, 코코아, 럼주 등임.

책을 시행함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판매가 급증<sup>2)</sup>하는 등 내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쿠데타 및 총파업 발생 등 극심한 정국불안과 생필품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으로 인해 2002년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1/4분기에는 29.9%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전년도의 총파업으로 인한 석유생산 중단 등으로 통계상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금년 경제성장률 9.8%에 이를 전망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볼리바르화 환율과 주시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주가지수(IBC)는 금년 들어 현지통화 기준 22%, 달러 기준 33.6% 상승한 2만 9,000 포인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볼리바르화의 대미달러 시장 환율<sup>3)</sup>도 국민소환투표 직전에 2,800 볼리바르 수준을 보였으나, 투표가 종료된 이후 2,600 수준으로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으로 인한

〈표〉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00	2001	2002	2003	2004 <sup>f</sup>
경 제 성 장 률	%	3.2	2.3	-9.1	-11.4	9.8
재 정 수 지 / GDP	%	-1.7	-4.3	-4.8	-5.8	-4.3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16.2	12.5	22.4	31.1	22.9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11,853	1,987	7,423	9,624	13,800
경 상 수 지 / GDP	%	9.8	1.6	7.8	11.3	13.6
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16,664	7,460	13,034	15,043	22,000
수 출	백만 달러	33,529	26,667	26,656	25,750	36,000
수 입	백만 달러	16,865	19,207	13,622	10,707	14,000
외 환 보 유 고	백만 달러	12,633	8,825	8,038	15,546	21,500
총 외 채 잔 액	백만 달러	38,152	34,960	32,563	33,000	34,400
외채잔액 / GDP	%	31.8	28.0	35.6	38.6	34.0
D. S. R.	%	16.2	25.1	25.6	19.9	15.5

자료 : IMF, IFS 각호 및 EIU.

2) 베네수엘라 자동차협회(CAVENEZ)에 따르면, 금년 8월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15%) 증가한 1만 804대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1~8월 누적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97.5% 증가한 7만 4,801대를 기록함.

3) 공정환율은 달러당 1,920볼리바르임.

외환도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왔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외환유동성이 비교적 풍부<sup>4)</sup>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1인당 GDP가 27% 하락하였고, 석유산업 부문의 생산액도 총파업 이전의 7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베네수엘라 경제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국불안으로 인해 신규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

치 못하고 있고, 석유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부진 등으로 석유의 증산여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유가 이외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으며, 향후 국제유가의 향배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도 부침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에는 석유수출 호조로 인해 9.8%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영 석】

#### 차베스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실시까지의 경과

- 1992. 2. 4. 차베스 당시 공수부대 중령, 쿠데타 실패, 2년 수감
- 1998. 12. 6. 차베스, 빈곤층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
- 1999. 2. 2. 차베스 대통령 취임
- 4. 25.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88% 찬성으로 통과
- 7. 25. 제헌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131석 중 123석을 석권
- 8. 20. 판사해고권 및 법원조사권을 제헌의회에 부여하는 사법비상령 선포, 세실리아 소사 당시 대법원장 사퇴
- 8. 25. 기존 의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입법비상령 선포
- 12.15. 신헌법안 국민투표 71%의 찬성으로 통과, 신헌법 주요내용은 대통령 연임제, 단원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국명 변경(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등임.
- 2000. 7. 30. 신헌법에 따라 새로 실시된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 재당선. 의회선거에서는 여당연합이 165석 중 96석을 차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
- 8. 19. 차베스, 임기 6년의 재선 대통령으로 재취임
- 11. 7. 대통령에게 경제, 사회분야 36개 법안에 대한 특별 입법권한을 부여한 수권법(Ley Habilitante) 제정
- 12. 3. 노조개혁을 위해 노조 집행부의 퇴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65%의 찬성으로 통과
- 2002. 4. 9. 노조 총파업이 차베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혈시위로 발전되고 군부가 이에 가담. 쿠데타 발생으로 차베스 대통령 퇴진, 12일 페드로 카르모나 상공인연합회(Fedecamara) 회장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취임
- 4. 14. 전국에서 20만 명의 차베스 지지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군부의 친차베스 세력이 과도정부에 반기를 들자 카르모나 임시 대통령이 사임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축출된 지 48시간 만에 권좌에 복귀
- 12. 2. 석유노조 및 노총(CTV) 등 야권의 총파업 선언
- 2003. 2. 1. 파업철폐, 63일간의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50억 달러로 추산
- 2. 6. 외환통제 및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실시
- 11.28.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유권자 서명운동 출범
- 12.19. 야권, 소환투표 청원을 위한 유권자 서명서 제출
- 2004. 3. 2. 선관위, 야권 제출 소환투표 청원서 공식 인정
- 7. 8. 선관위, 8월 15일을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일로 결정
- 8. 15. 차베스 대통령 국민소환투표 실시

4)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0년 126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8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석유 수입 증대로 2003년 150억 달러, 금년 9월 현재는 215억 달러를 기록함.